

# 진호사찰 청련사 시·공간에서 펼쳐지는 전통의례문화\*

이 성 운\_불교의례문화연구소 연구실장

## 목차

- I. 서언: 의례는 전통문화의 보고
- II. 비보를 위해 건립되는 사찰
- III. 진호사찰로 중창되는 청련사
- IV. 유형을 장식하는 의례문화
- V. 결어: 역사를 잇는 전통의례

---

\* 이 논문은 양주 청련사 학술대회(2018.4.14.)에서 발표했던 글을 일부 수정하여 게재한 것임.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신라 흥덕왕 때에 서울 왕십리 남산 산록에 안정사로 창건되었고, 조선 초기 무학대사에 의해 중창된 이후 진호사찰로 자리매김 된 이래, 중창을 거듭하다가 2010년 경기도 양주 개명산으로 이진한 청련사의 시·공간에서 펼쳐지는 불교의 전통의례문화를 살핀 글이다. 먼저 첫째 장에서는 시대와 지역을 지배하는 문화의 의미와 전통문화이자 문화전통인 불교의례에는 전통문화의 가치가 담겨 있고 문화전통의 보고라는 전제 아래 말글을 연다. 둘째 장에서는 역사적으로 한국사찰의 건립 배경이 되는 사상을 알아 보았는데, 호국만다라 사상과 산천비보사상에 입각하여 비보사찰로 건립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장에서 다룬 내용은 안정사(安靜寺)로 창건되었고 중창되면서 東靑蓮·西白蓮의 호국 만다라와 진호사찰로서 청련사가 지정되었다는 것을 밝혔다. 넷째 장에서는 청련사(안정사)의 역사 속에 남겨진 당우 및 전해진 전적들을 바탕으로 청련사에서 행해진 전통불교의례를 살펴 보았으며, 마지막 장에서는 양주로 이진해온 청련사의 전통문화의 전승 양상을 범패 중심으로 살펴 보며, 새로 이주한 양주에서 전개되는 전통의례가 어떻게 문화전통의 역사를 잇고 있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짚어 보았다.

핵심어: 불교의례, 안정사(安靜寺), 청련사(靑蓮寺), 전통문화(傳統文化), 비보사찰(裨補寺刹), 진호사찰(鎭護寺刹), 어산(魚山) 상진(常眞)

## I. 서언: 의례는 전통문화의 보고

어느 시대나 지역을 막론하고 그 시대와 지역을 지배하는 화두가 있다.<sup>113)</sup> 그 시대와 지역에는 갖가지 문제가 있으며, 그 문제를 극복하려는 시대와 지역의 사상과 희망과 의지가 실현된다. 그것들의 총아는 문화라고 할 수 있으며, 문화는 인간다워지려는 노력, 인간의 존엄성을 찾는 것이라 하겠다. 인간의 존엄성은 욕망의 맹목성과 속박으로부터 벗어남이고, 욕망의 대상을 따라 밖으로 해냄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한다. '구속'에서 '자유'로 시선을 옮기면 '문화적 존재'로 성숙한다 할 수 있으며, 비로소 사람답다<sup>114)</sup>고 할 수 있다. 이렇듯이 문화라는 것은 명백한 개념을 갖는 것으로 어떤 사회가 만들어내고 전승시켜 가는 사회구조(이를테면 카스트)와 사고방식, 여러 가지 관념들, 사회관습, 의례 등을 포함한 생활양식을 가리킨다.<sup>115)</sup>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전통과 현대라는 두 거리를 좁히려 하지 않고,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외면해왔다. 문화가 우리 사회의 주 담론으로 자리 잡은 것은, 어쩌면 민주화 시대를 지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전통 농경사회에서 근대 산업사회로 이행된 지 적지 않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 사회는 현대화와 편리함만이 최상이라는 데 암묵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생각된다. 경제성장과 민주화는 산업화 과정에 소외되었던 것이나 중심에서 밀려났던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하였고, 전통사상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은 필연적이었다. 외형적 성장 지상주의에 경도되었을 때는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도태되어야 할 것, 버려져야 할 것으로 치부되었지만 그 속에 인간의 삶이 있고 문화가 있다는 데 관심이 이르게 되면서 부지부식 간에 우

113)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편(2000), 5.

114) 변영섭(2008), 28.

115) 中村元, 金知見 譯(2011), 87-88.

리의 정신적 삶에 뿌리 틀고 있는 전통사상과 문화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전통문화란 한 사회 집단이 과거에 지니고 있던 고유한 문화로서 주로 과거에 속하는 고유문화이고, 문화전통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한 집단에 축적된 문화양식 중에서 현재의 사회 환경 속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고유한 문화로서 주로 현재에 속하는 고유문화<sup>116)</sup>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최상을 붓다라 하며 그 최상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불교의 가르침을 오랜 세월 신봉하고 실천한 불교도들의 문화는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이자 최상의 문화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논의의 주제는 “진호사찰 청련사의 시·공간에서 펼쳐지는 전통의 레문화”이다. 청련사는 신라 흥덕왕 대 안정사(安靜寺, 安定寺)로 서울의 왕십리 무학봉 인근에 창건되었으며, 선초 무학대사에 의해 중창된 이후 진호사찰로 역할을 수행하다가 2010년 양주 개명산 자락으로 이전되었다. 논의하고자 하는 의례문화에서, 의례는 종교의 핵심을 구성하며, 살아 있는 세계관의 역동적 측면이며,<sup>117)</sup> 종교의 내용에 깊은 의미와 활력을 주는, 즉 종교의 목적을 완성시키는 가장 중요한 행위이다.<sup>118)</sup> 종교의례 안에서는 신념체계와 실천체계가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한다.<sup>119)</sup> 그러므로 종교의식의 실천체계를 분석해 보면 그 종교를 신앙하는 이들의 신념체계와 세계관과 실천의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sup>120)</sup> 한국불교의 의례·의식<sup>121)</sup> 속에는 다양한 특성이

116) 임영정(2002), 19-18.

117) N. Smart, 강돈구 역(1986), 172.

118) W. R. Comstock, 윤원철 역(1986), 62-63.

119) Catherine Bell(1977), 7.

120) 신념체계와 세계관을 확인하는 것은 교전(敎典)과 역사(歷史), 종교인의 삶 등으로도 가능하지만 이것들은 사회적이고 동태적인 종교현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121) “여기서 ‘儀禮’와 ‘儀式’은 유사한 개념이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儀禮가 어떠한 교리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의식 전반을 일컫는 상위개념이라면, 儀式은 의례 속의 法式과 禮式과 같은 실제적인 절차를 일컫는 하위개념이다.” 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 장구한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한국불교는 위로  
는 왕실과 아래로는 기층민의 삶에 육화되면서 그 뿌리를 내려왔다.  
이 과정에서 불교는 재래의 무교와 습합되어 불교적 색채가 희미해지  
게 되었지만 기층민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게 되었다는 긍정적 측면  
에서 양면성을 안고 있다.<sup>122)</sup>

천년고찰 청련사의 긴 역사 속에 행해져온 의례문화를 이 단편에  
서 다 언급할 수는 없다. 전통문화이자 불교적 상징성을 도출해 내는  
문화인<sup>123)</sup> 불교의례가 펼쳐지는 공간인 진호사찰들이 어떻게 창건되  
었는지 그 배경 사상을 둘째 장에서 알아보고, 진호사찰로 청련사(안  
정사)가 중창되는 의미를 셋째 장에서 뜯어보며, 진호사찰에서 행해  
지는 의례문화를 역사적으로 존재해온 보편적인 의례문화와 그 가치  
를 넷째 장에서 살펴보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양주 땅으로 터를 옮  
긴 청련사에서 향후 이어가야 할 전통의례문화가 무엇이며 그 역할은  
무엇인지를 찾아보며 글말을 맺을 것이다.

## II. 비보를 위해 건립되는 사찰

불교를 수용한 동아시아에서는 오늘의 개념으로 보면 불교를 국가  
적으로 수용했다고 할 수 있다. 중국불교 초전의 역사인 백마사의 건  
립 사례도 그렇고, 성문사와 이불란사를 건립하여 스님들을 주석하게  
한 고구려나, 한산에 절을 짓고 10인은 득도시켜 머물게 한 백제나,  
흥륜사를 세워 스님들이 주석하게 한 신라의 사례 등이 이를 증명하  
다. 심지어 신라의 법흥왕과 왕비는 퇴임 후 사찰에 들어와 머리를  
깎고 비구와 비구니가 돼 불도를 수행하였고, 당나라에서는 도성과

성운(2012), 1, 주6).

122) 高翊晋(1989), 57-84. '3. 巫俗信仰 攝化的 様相'

123) 최복희(2010), 57.

지방에 관립사찰 개원사를 건립하여, 천자의 생일 등 축수의식은 개원사에서 행하고, 국기(國忌)의 법요는 용흥사에서 행하여 개원사는 국가 축전의 의식을 집행하는 도량으로 지정되기도<sup>124)</sup> 하였다.

한국불교의 경우에는 비보사상(裨補思想)에 의해 사찰이 건립되거나 원찰 원당이 건립되어 국왕의 무병장수와 국리민복을 기원하였다. 왕이나 귀족에 의해 승단에 사원을 기증하는 인도불교와 다르게 동아시아불교에서는 국가적으로 불교를 수용하고 국가불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 해서 현대적 개념의 종교의 모습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역불의 시대 조선 때에도 흥천사와 흥복사, 원각사, 용주사 등을 건립하거나 양란 이후 조선 후기에는 허물어진 사찰을 증건하는데 왕실과 사대부가에서 참여하는<sup>125)</sup>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적 관점에서 건립된 사찰에 담겨 있는 한국불교의 주요 사상은 무엇인가. 선사상, 화엄사상, 천태사상, 미륵사상, 정토사상, 밀교사상, 관음사상과 신앙이 주로 언급되며, 이 사상들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사회 발전 및 역사 진행의 각 단계에 상응하는 정신기반과 이념을 제공해왔다. 둘째 고착된 관념의 극복을 위한 사상적 개혁운동으로 경주되어 왔다. 셋째 한국불교가 그 사상적 중심과제로서 끊임없이 조화와 통일성이 추구되어 왔으며, 우리 민족의 정신적 근간이 되고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sup>126)</sup>

이 가운데 사찰 건립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사상으로는 화엄의 유연불토설(有緣佛土說)이나 호국만다라 사상이나 일심법계관, 오방 극락의 정토사상, 밀교 만다라 사상, 선사상 가운데 도선의 비보사탑설(영지 원찰 창사에서 흠배처에 사탑으로 비보해야 한다는 설) 등이 그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상을 요약해 보자. 화엄사

124) 鎌田茂雄, 鄭舜日 譯(1992), 184.

125) 대한불교조계종(2011), 231-232.

126) 李載昌(1993), 9-21.

상은 한국불교에서 독특하게 전개되었다. 신라 불교인들은 화엄유연(華嚴有緣)의 불토관을 전개하였는데 오대산의 오대 건립이 그것이다.<sup>127)</sup> 의상(義相, 625~702)은 법성계를 통해 지금 이 자리 눈앞에 현해 있는 변화의 세계야말로 진리의 세계라고 하였다. 중국 화엄종에서 이사무애와 사사무애를 설하였지만 의상 화엄사상은 이리무애법계(理理無碍法界)를 설한다. 의상은 본질의 ‘이(理)’ 또한 차별적이라고 하여 이를 강조하며, 지혜보다 실행을 강조하고 있다.<sup>128)</sup> 법성계는 일체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는 불교의 본질적 사상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실천적 행법으로 의례문화에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법성계도는 일체 존재[法]는 모두 붓다[佛]로 돌아간다는 것을 표현한다. 이 법계도는 가운데 ‘법’자에서 출발하여 210자의 7언 30구의 계송이 54각을 그리며 돌고 돈다. 그 끝의 마지막 ‘불’자는 중앙의 법자와 마주하며 마친다. 이것은 고향을 떠나 방황하는 나그네가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다.<sup>129)</sup> 법성계는 소대로 나아가거나 이곳에서 저곳으로 위치 이동을 할 때 주로 염송된다. 마당에 법성계도를 그려놓고 그 길을 따라 법성계놀이를 한다. 화엄사상은 한국불교 교학의 근본이 되어 있으며, 또 일심법계의 국토관은 화엄만다라<sup>130)</sup> 건립의 이념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고통 받는 예토(穢土)의 현실을 떠나 극락의 정토(淨土)에 왕생하기를 구하는 정토사상은 중방의 화장(華藏)세계, 동방의 만월(滿月)세계, 남방의 환희(歡喜)세계, 서방의 극락(極樂)세계, 북방의 무우(無憂)세계의 오방 극락을 구현해, 불교만다라의 개념을 완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 있다. 그 가운데 염불로 왕생한다는 서방의 극락은 대중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게 되고 절대적 우위에 놓이게 되면서 현재 서방

127) 金煥泰(1997), 38.

128) 李智冠(1993), 66-79.

129) 위의 책, 71.

130) 金永材(1999), 611-623.

극락은 한국불교의 대표극락으로 등극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성 동쪽의 청련사에 대비해 서쪽의 정토사를 백련사라고 지정하는 것도 정토사상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불교의 의례문화는 극락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왕생극락사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밀교사상은 진언염송(眞言念誦)·수인(手印)·관상(觀想)의 삼밀행법으로 그 뜻을 드러낸다. 정통 밀교사상은 개체[나]와 전체[佛]의 신비적 합일(合一), 곧 즉신성불을 목표로 한다. 그 통찰을 전신적(全身的)으로 파악하는 실천과 의례(儀禮)의 체계를 갖는다. 이와 같은 체계는 『대일경』과 『금강정경』에 의거해 성립되었으며, 깨달음의 세계를 부처와 보살을 이용하여 그림으로 그리는 만다라로 나타난다. 태장계만다라는 『대일경』에 근거하여 여래의 보리심과 대비심을 태아를 양육하는 모태에 비유하여 그림으로 전개한다. 또 금강계만다라는 『금강정경』에 의거해 중앙의 대일여래를 중심으로 동쪽에 아촉불, 서쪽에 아미타불, 남쪽에 보생여래, 북쪽에 불공성취여래를 배치한다. 결국 만다라는 밀교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세계관에 의거해 전국토를 하나의 만다라, 하나의 대 도량으로 보게 된다.

만다라(曼陀羅, mandala)는 원(圓)을 뜻하는데, 둥글게 두루 갖춤을 의미한다. 사상적으로는 어떤 것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나 부분이 단 하나라도 빠짐이 없이 완전하게 구비된 상태를 나타낸다. 그렇게 되어 전국 산천지도를 그려놓고 도량개설의 장소에 표시(낙점)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sup>131)</sup> 만다라와 도량을 개설해서 제불보살과 수적제신의 가호력을 빌고 이에 따라 증험된 가호신력에 의하여 인류사회와 국토 인민의 난관을 기원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고 신앙하였다.

밀교신앙의 국가적 응용과 사실적 활용이 곧 도선에 의하여 비롯

131) 徐閔吉(1976a), 71.



된 비보산천 사상이다.<sup>132)</sup> 비보사상은 국내 산천 중에서 길지(吉地)나 또는 비보(裨補)해야 할 곳을 간택하여 사탑·불상·부도 등을 건립하고 각종 법을 수행함으로써 재불보살과 지신력(地神力)의 가호를 빌어 일체의 흉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모든 길사를 초래케 하여 국가와 국민 그리고 정법을 수호하려는 밀교적인 범용이다.<sup>133)</sup> 이 같은 여러 사상을 바탕으로 전국에 비보사찰이 건립되었다.

### III. 진호사찰로 증창되는 청련사

국토 만다라 사상은 도읍지 한양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청련사증창기」(1924년)에 의하면, 청련사는 흥덕왕 2년(827)에 처음 창건되었으나 크게 발전하지는 못하였고 조선 태조가 등극한 4년(1395)에 국사 무학화상에 의해 증창되었다고 전하고 있지만 『한국사찰전서』를 편찬한 권상로는 신라 창건설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태조 4년(1395) 왕사 무학조사가 남산 동쪽 계곡에 사찰을 창건하고 안정사라 이름하고 후에 ‘청련사’로 개칭하였다는 설이 정설에 가깝다고 인정되고 있다.

조선의 태조는 신불군주라 불교 의례를 통해 소원을 이루고자 하였지만 태종은 불교의 억압과 증지에 힘을 썼다. 하지만 수륙재와 작법(오늘날의 영산재)의 수요는 빈번해져 세종 원년에는 회암사가 작법도량으로 진관사가 수륙도량으로 지정된다.<sup>134)</sup> 작법도량과 수륙도량의 지정은 해당 사찰이 경전의 염송을 중심으로 하는 작법과 승려들에게 재를 올리는 도량으로 적합하였고,<sup>135)</sup> 또 수륙재를 설행할 수

132) 徐閔吉(1976a), 71.

133) 徐閔吉(1976b), 171.

134) 『세종실록』 6권 1419년 11월 28일

135) 『태조실록』 권3, 1393년 2월 24일조.

있는 산수가 깨끗한 곳<sup>136)</sup>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세조는 밀교의 비보사상에 의거해 원각사를 중앙에 건립하고 사방에 진호사찰을 지정했다. 『청련사지』는 “옛 법전 상량문에 의하면, 조선 정도(定都) 후 무학 왕사가 지점한, 소위 호국(護國)만다라 중에 동청련·서백련·남불암·북승가의 하나이다.”<sup>137)</sup>라고 하였고, 또 “태종 후 세조 조에서 원각사를 중심으로 사우에 보사(補寺)를 지정하니, 동청련(東靑蓮)·서백련(西白蓮)은 정도왕생을 의미하여 양열반계(兩涅槃界)라 하고, 남삼막(南三幕)·북승가(北僧伽)는 또 진호사(鎮護寺)가 되었다.”<sup>138)</sup>며 청련사가 진호사찰로 중창되었음을 천명하고 있다.

망자를 위한 칠칠재 법석이나 수륙재 영산작법도량은 이미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중앙의 법계체성지[본질, 주체]를 상징하는 원각사를 비보하고 진호하고자 사방에 비보사찰을 지정하여, 내세를 왕생을 발원하는 백련사에 대비되는 현세의 건강과 무병장수를 예수하는 도량으로 청련사가 선택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동서의 두 도량이 생전과 사후의 극락 연화장세계를 지향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기묘하다. 남북의 승가(僧伽)와 삼막(三幕)의 두 도량이 공간적 진호에 방점이 주어진다면 동서의 백련과 청련의 두 도량은 인간 삶과 죽음의 비보[왕생극락 조력]와 진호[安定]에 방점이 찍힐 수 있을 것 같다.

청련사가 비보사찰로 지정되었다고 하지만 조선 초기 술하게 개최된 수륙재와 칠칠재의 법석이나 치병의 약사도량 등 국가적인 불교의례문화가 청련사 혹은 안정사에서 설행되었다는 기록은 — 19세 중반 중창불사에 왕실 관련 인물들이 참여한 사실<sup>139)</sup>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한강이 가까이 있는 종남산의 동녘에 자리하고 있으며,

136) 『세종실록』 9권, 2년(1420) 9월 22일조.

137) 안진호·이종익, 이철교 해제(1994), 53.

138) 白牛大宗師法語集編纂委員會(2016), 287-288.

139) 유근자(2018), 47-53.

무학 대사의 정도(定都) 인연이 서린 청련사는 그 지리적 조건과 ‘청련’의 상스러운 고사 등으로 인해 정도사를 재궁으로 정하고 백련사로 사명을 개칭한 이후나 원각사가 창건된 1465년<sup>140)</sup> 이후에는 진호사찰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이 시기는 사리분신의 영험으로 사리 신앙이 극도로 성행할 때였다.<sup>141)</sup>

동청련과 서백련이 양 열반계라고 한 사실에 주목해 보자. 동서의 두 연화와 관련된 사찰은 우연인지 무학대사와 관련이 있다. 백련사는 통일신라 때 진표대사가 정도사로 창건하였고, 무학의 제자 함허득통이 1399년 중창하여 법당과 요사를 일신하였는데, 세조 때 이 절을 잘 수호하도록 명령하고 아울러 의숙옹주의 묘가 백련산 밑에 있어 백련사를 재궁으로 정하고 백련사라고 이름을 고쳤으나 오랫동안 정도사, 경티절로 불렸다.<sup>142)</sup> 백련사는 곧 서방의 극락세계에 왕생을 기원하는 진호사찰이었다. 하지만 청련사를 비롯한 다섯 호국만다라의 진호사찰 지정 기록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야 나타나고 있으며, 청련사나 백련사 외의 나머지 세 사찰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남북의 삼막사와 승가사는 동의 불암사와 서의 진관사와 더불어 서울 근교 4명찰로 전해지고 있고, 삼막사는 연주암과 염불사와 더불어 관악산 3대사찰로<sup>143)</sup> 알려지고 있을 뿐이다. 원각사의 4우(隅)를 비보하며 도성을 진호하는 사찰로 지정되었다는 이 사적은 여타 사적에서 간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의 확인이 어렵다고 해서 그 의미나 신앙마저 부정될 수는 없다.

안정의 계곡에 세워진 사찰이, 조선 건국 초에 진호사로 중창되고

140)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4월 7일 계미 2번째기사

141)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12월 24일 정유 2번째기사 “원각사(圓覺寺)에 서기(瑞氣)와 상운(祥雲)이 어리고 사리 분신(舍利分身)하는 기이함이 있으므로 백관이 진하(陳賀)하였다.”

142) 사찰문화연구원(2008b), 236-238.

143) 사찰문화연구원(2008a), 33; 북쪽은 보개산 심원사가 한양근교의 4대사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찰문화연구원(2008b), 269.

‘청련사’라고 하였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호국만다라사찰로서 밀교적 오방관이 투영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신라 신문왕 때 전개된 오대산 신앙은, 중앙은 황색의 비로자나, 동방은 청색의 원상관음, 남방은 적색의 지장보살, 서방은 백색의 아미타불, 북방은 흑색의 석가여래를 배치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오방불의 배치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본사와 하원을 합해 7곳에 37인의 복전을 두고 경전과 예참을 행하고 있는 점은 화엄만다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오방의 진호사찰에서의 행법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준다.

조선조 유일의 왕사 무학이 조선의 도읍을 정하기 위해 안정사 석벽 아래서 7일 동안 기도하면서 관세음보살의 화신을 접하고 경복궁터를 잡았다는 설화를 『청련사지』는 전하고 있다. 이때 뒤뜰에 핀 푸른 연꽃에 상서로운 기운이 서린 것을 보고 사찰명을 청련사로 바꾸었다고 한다. 청련화의 서상이 나타나 홍진(紅塵) 세상 그대로 이곳에서 청련화 정토를 실현시키하고자 하는 이상이라고<sup>144)</sup> 할 수 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볼 때 동방정유리세계의 약사여래를 주존으로 모시고 기도함으로써 현실에서 고통을 소멸하고 정토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방의 백련사가 사후의 왕생극락을 추구하였다면 동방의 청련사는 현실에서 치병하여 현실의 열반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비보(裨補)는 곧 진호(鎭護)이다. 나라나 도성의 변방에 자리해[位鎭] 나라와 도성을 지키는 것이다. 불교 호국의 참된 의미는 무기를 들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경전과 다라니를 염송하여 외우내란을 진압하여 호국하는 것이다.<sup>145)</sup> 부처님께 공양하고 성현과 스님들과 아귀들에게 공양하고 다라니를 염송하면 밖으로 몸의 빛과 힘이 더욱 좋아지고 안으로 정신이 복덕과 지혜가 늘어나 되는데<sup>146)</sup>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된 진호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불교의례문화의 본령

144) 白牛大宗師法語集編纂委員會(2016), 287.

145) 이성운(2017), 310-312.

146) 宗蹟(X 57), 114b.

이기도 하다. 동방의 정유리세계를 구원하는 청련사는 결국 역사여래 신앙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서방의 정토세계를 아우르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오대산문수신앙<sup>147)</sup>에서 볼 수 있듯이 복전(福田)이 상주하며 예참과 정근으로 삼전의 무병장수와 국태민안을 축원한다. 무병장수를 발원하는 구체적인 의례문화는 고려 초기 도입된 시왕신앙이었다. 시왕신앙은 사후의 심판을 중심으로 시설된 것 같지만 본질은 생전의 선행의 장려라고 할 수 있다. 시왕신앙의 경전적인 근거는 『불설예수시왕생칠경』이다. 무병장수는 사후의 왕생극락보다 더욱 적극적인 선행의 실천을 돕는 의례문화로 행해져 왔다. 이 흔적은 명부전의 지장보살과 무독귀왕, 도명존자를 상전으로 하는 시왕과 권속의 도열이 그것이다.

왕실과 도성의 진호사찰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청련사의 전통의례문화를 이제 유형의 전각과 불상 및 불화와 전적을 중심으로 그려보자.

#### IV. 유형을 장식하는 의례문화

한국 사찰과 당우의 운명이 그러하듯이 슬한 역사의 질곡으로 창건 당시의 모습이 온전히 전해지는 곳은 극히 일부이다. 역불정책으로 인한 사찰 당우의 파괴와 전란·화재 등으로 인해 이전·중건·중창을 이어오면서 애초의 모습이 온전히 보존돼 왔다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청련사의 연혁만 봐도 1726년 3창, 1801년 5창, 1849년 요사 중창, 1854년 법우(法宇) 중건, 1924년 시왕전 중건, 1942년 중창을 거치고, 육이오 전쟁 이후를 거친 다음 2010년 서울의 종남산에서 양주의 개명산으로 이전하여 전통방식으로 가람을 배치하였다.

147) 광뢰(2018), 95-114.

청련사가 증창된 조선 초기 불교 사찰에서 거행된 주요 의례문화는 무엇이 있을까. 1395년 왕조 교체 과정에 희생된 고려 왕 씨를 위해 개성의 관음굴과 삼척의 삼화사, 남해의 견암에서 수록재가 설행되었고, 1397년에는 진관사에 수록사가 건립되어 왕실 조상의 덕에 보답하고 무주고혼을 위한 수록재가 열렸으며,<sup>148)</sup> 새로 죽은 이를 위한 칠칠재와 선조의 기신일에 행하는 기신재(忌晨齋), 무주고혼에 대한 수록재(水陸齋)와 칠칠재, 승려들에게 재(공양)를 올리는 반승(재승)과 기신재·수록재를 행할 때 경전을 염송하여 망자의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법석을 여는 작법이 중심을 이루었다. 아울러 병환이나 천재지변 등의 재앙이 있을 때 치병과 재앙의 소멸을 기원하는 약사도량이나 신중도량 등이 열렸으며, 무병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예참이나 수록재도 행해졌다.<sup>149)</sup>

그렇다면 청련사는 어떤 사찰 구조이었으며 거기에 상응하는 의례문화는 무엇인가. 왕십리 청련사(안정사) 터는 협소하여 조선 후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사동중정형이나 회랑형 구조를 지닐 수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청련사와 같이 대웅전을 중심으로 왼쪽에 원통보전, 오른쪽에 명부전을 시설하여 생자를 위한 관음기도, 망자를 위한 지장기도와 생전예수재를 설행할 수 있도록 배치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약사전, 미타전, 관음전, 명부전(시왕전) 등에 각 존상을 봉안하고 평소의 기도와 “수월도량공회불사”를 건립하였을 것이다. 『청련사지』 등의 기록이나<sup>150)</sup> 청련사에 소재하고 있는 전각 건립역사나 소상과 화상, 서책 등에 의지하면 다양한 전통의례문화가 설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진된 청련사 배치와

148) 권근(1986), 251-253.

149) 『태종실록』 1권, 1년[1401 신사, 명 건문(建文) 3년] 1월 17일(정축) 2번째 기사.

150) 『白牛大宗師法語集』(2016), 286-298. 1924년 이전의 당우를 법전, 범우라고 표현하고 의미 있다고 보인다. 이는 불당의 법당화(法堂化)뿐만 아니라 수선(修禪)의 선법(禪法)을 상징하고 있다고도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소장된 소상과 화상 및 경괘와 현재 남아 있는 기록을 참고로 청련사를 무대로 펼쳐진 무형의 전통의례문화를 추론해 보자.

현재 청련사 대웅전에는 아미타불과 좌우에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의 삼존이 봉안돼 있다. 이는 극락세계를 상징한다. 불교의 의례의 종언은 극락세계로의 귀결이다. 좌우의 원통보전과 명부전은 원통보전과 명부전이라고 칭해졌을 때는 일반적인 관음전과 지장전과는 그 의미가 좀 달리 해석된다. 다시 말하면 관음전과 지장전의 명칭을 가질 때는 대웅전의 협시전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에 반해 원통보전과 명부전이라고 할 때는 『능엄경』과 『예수시왕생칠경』을 소의경전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두 전각에서 행해지게 되는 의례는 독립적인 성격으로 봉행되는 데 적합하다. 원통보전은 관음기도뿐만 아니라, 능엄예참이나 능엄법석의 주전이 될 수 있다. 명부전은 지장보살과 좌우에 무독귀왕과 도명존자를 증명으로 봉안하고 있어 순수한 시왕 신앙의 터전이나 생전에 사후의 예수재 의례가 설행되는 터전이었을 것이다. 1940년대 『청련사지』가 기록될 당시 청련사 소장 화상(佛畫彫像)의 소재를 기준으로 보면 법당, 대방, 명부전, 칠성각의 네 곳과 패불을 모시는 야단이 의례문화의 무대라고 할 수 있다. 패불을 모시는 야단법석에서 설행되는 의례문화를 무엇이 있는가.

## 1. 야단의 정근 법석(法席)

야단에 개설되는 대표적인 의례문화는 영산재와 수록재, 예수재가 있다. 야단에 법석이 건립될 때는 야단에 패불을 모신다. 법전(대웅전)은 해당 불보살님이 선정에 들어 계시는 곳이므로 그곳에서는 조석예불이나 사시마지가 봉행될 뿐이다. 지금은 법전이 비교적 넓어 소규모 법석이 차려질 수 있지만 대규모 법석은 건립되기 어렵다. 그럴 때 마당의 야단에 패불을 모셔 걸고 법석이 펼쳐진다. 조선 초기 펼쳐진 법석은 칠칠재 사이에 5일간 펼쳐지게 되고 일정한 숫자의 경사(經師,

경전 염송하는 스님)들에 의해 봉행되었다. 오대산신앙에서 일곱 곳의 방소에서 도합 37인이 예참과 주독(晝讀, 주간에는 경전을 독송하고) 야염(夜念, 야간에는 명호를 염송)을 행하고 있듯이,<sup>151)</sup> 또 태종이 부왕 태조의 치병을 위해 도량을 개설하고 있음도 그것을 보여준다.<sup>152)</sup>

상설 기도 때는 정해진 소수의 인원이 예참이나 정근을 하였다고 본다면, 야외에 설단하고 정근 기도를 할 때는 백고좌법회처럼 백 명의 고승들이 참여한다. 태종 13년에는 중궁의 병이 위독하자 경사(經師) 21인을 동원해 본궁에서 약사정근을 열고 경회루에서는 승려 백 명을 동원해 불경을 읽고 있다.<sup>153)</sup> 임금과 중궁 등의 치유를 위한 약사 정근 기도를 할 때 임금이나 세자도 연비를 하고 있다. 약사 기도는 약사전뿐만 아니라 내불당에서도 행해졌다.<sup>154)</sup> 동방의 비보사찰로 정해진 청련사에서는 약사여래를 주불로 모시고 약사기도가 봉행되었거나, 주전에 약사여래를 모시지 않았더라도 약사여래를 보좌에 모시고 공양을 올린 다음에 정근기도가 봉행되었을 것이다.

한국불교의 신행이 참조된, 전통적인 소상을 안치하는 법식은 중앙의 석가모니불 동방의 약사여래 서방의 아미타불이 삼존불로 모셔지고 그 좌우에 가섭과 아난존자가 시립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청련사에 남은 약사 기도의 흔적은 약사경 한 권에 불과하나 동방의 비보(裨補)요, 진호(鎭護) 사찰로서의 주 역할을 봉행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겠다.

## 2. 명부전과 야단의 예수재

영산재는 칠칠재를 성대하게 봉행할 때 설행되고, 수록재는 무주고

151) 徐閔吉(1993), 270.

152)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1월 28일 정축 1번째기사.

153) 『태종실록』 25권, 태종 13년 5월 6일 갑신 2번째기사.

154) 『세종실록』 126권, 세종 31년 11월 1일 정축 2번째기사.



혼을 위한 무차법회의례로 설행되는데, 두 의례는 그 대상이 망자이다. 그에 비해 생전에 스스로 재자가 되어 사후의 칠칠재를 설행하는 예수재는 그 대상이 '산 자'라는 데 특징이 있다.

전통 예수재는 대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법신·보신·화신의 삼신불은 법당 안에 모신다. 육광보살, 육대천조, 지장보살, 도명·무독귀왕은 좌측 중단에 모시고, 사대천왕과 대법천왕과 제석천왕은 우측 중단에 모신다. 하단에 풍도대제를 중심으로 좌측에 1,3,5,7,9왕을 모시고 우측에 2,4,6,8,10왕을 모신다. 시왕의 권속들을 그 아래 좌우에 모시게 된다.<sup>155)</sup>

현재 이와 같은 설단 모습은 청련사 명부전에서 확인된다. 법당 앞 중앙에 패불이 모셔지고 불단에 공양물이 진설된다. 결계를 한 사방에는 각종 진언번이 걸리고, 불보살님의 위목이 정면에 걸린다. 돈을 만들고 경전을 준비한다. 사후에 다른 후손이 행해주는 추천재의 의식과 달리 생전에 미리 내가 닦는 예수재에는 저승에 가져가야 할 빚진 돈을 만들고(조전의식) 옮기는 의식이나, 읽어야 하고 갚아야 할 경전을 준비하고 독송하는 의식이 함께 행해진다.

예수재에 대해 종종 중세 서양의 면죄부 판매와 비슷하다는 오해를 하는 이들이 있는데 예수재를 가만히 보면 그 차이나 의미가 다를 것을 금방 알게 된다. 갚아야 할 돈은 종이로 만드는 가짜 돈인데,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 재자나 법사의 정성이 제일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또 경전을 읽는 것이 주된 의식인데, 법화경이 염송경전인 수록재에 비해 예수재에는 금강경이 주로 염송된다. 이는 예수재가 추구하는 건강과 무병장수와 관련이 있다. 부서지지 않은 금강 같은, 강철 같은 몸을 이루고자 하는 염원인 예수재에 담겨 있다. 그러므로 예수재는 자력성이 강한 의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금강경의 주된 사상인 공의 실천을 표현한다.

155) 智還 撰(1993), 4.

예수재는 대략 다음의 절차가 있다. ‘전점안’, ‘조전점안’이라고 하여 종이돈을 저승세계의 돈으로 만드는 의식이다.<sup>156)</sup> 점안은 어산 스님들에 의해 행해진다. 다음은 영산작법, 혹은 운수상단이라고 하여 일체에 항상 계시는 삼보님께 인사드리고 법회를 행하게 되었음을 알린다. 일체 삼보에게 법회를 알리는 의식은 향을 사라 행하고 합장을 해 내 몸을 공양구로 만들고 진실하고 정성을 다한 실상에 계합하는 마음으로 향을 사라 올리며 마음 향으로 팔만의 문을 열 수 있는 선정과 지혜로서 삼보님들이 법회에 임하여 주시기를 청한다. 이어 법회를 알리는 사신을 하늘세계와 허공세계 지상세계 엄마세계에 보낸다. 상위의 성현을 청해 목욕을 하시게 하고 자리에 모셔 공양을 올린다. 중위 격인 시왕을 한 분 한 분 일일이 거명하여 불러 모시고 목욕을 하게 한 다음 상위의 성현께 인사드린다. 시왕의 권속들도 빠짐없이 청한다. 저승 돈을 맡길 창고관리도 청한다.

상위와 중위와 여러 권속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사신[使者]이 타고 법회가 열리게 되었음을 전하러 갈 때 타고 떠날 말들에게도 먹이를 먹인다. 저승 돈을 관리하는 관리에게 공양을 올리고 나서 ‘합합소(緘合疏)’를 아뢰는다. 합합소에는 그 의미가 드러난다. “부처님 가지법에 의지하여 가짜를 진짜로 변화시키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들며, 금은(金銀) 지전을 변화하여 하나가 한량없이 많게 하고 한량없이 많은 것은 하나가 되게 하여 하나와 많음이 걸림 없고 사물과 이치가 서로 융화하여 찰해(剗海) 안에 가득해지게 하소서.”라고 하여 많고 적음에 걸림이 없고 사물과 이치가 서로 융화되기를 발원한다. 각자 저승 돈을 바치고 합합소를 아뢰고 봉하며 새롭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그 속에 있다.

156) 1956년 청련사로 출가한 현 청련사 주지 해경(78세)이나 1960년대 초반 출가한 청련사 원로승려 유지홍의 증언에 의하면 1960년대 후반 중정부장 이후락의 노모 생전예수재를 봉행할 때 큰 트럭으로 1대의 종이를 들여와 저승 돈을 만들었고, 청사초롱 등도 수없이 전통방식으로 제작하였다고 함.

예수재는 태어난 해의 육십갑자에 따라 빛이 다르다는 사상에 의지하는데 이는 현재 시왕의 십재일신앙으로 발전하였다가 다시 전변하여 변화되어 시왕의 원불에 신앙으로 정착돼 있다. 사후 칠칠재와 백일재 소상재 대상재를 살아 있을 때 스스로 봉행하는 예수재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오직 자신만을 알고 물질문화에 경도되기 쉬운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각별하게 그 의미가 다가오는 전통의 의례문화라고 할 수 있다.

### 3. 대웅전의 축상작법

청련사의 대웅전에는 극락삼성이 모셔져 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사바세계, 곧 참아가며 살아가야 하는 세계라고 한다. 이와 같은 언표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불교에서 이 세계를 고통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한한 인간 능력의 발현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나고 죽고 하는 윤회의 삶을 벗어나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파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 장치가 바로 극락이다. 나고 죽고 하는 불만족스러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즐거움의 나라, 그곳이 바로 극락인 것이다. 극락에 가기 위해 발원하는 인간은 선업을 닦고 본래 나고 죽는 것이 따로 없음을 깨닫는다. 이를 위해 생전에 선업을 닦고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을까 염려하여 사후에 닦을 칠칠재를 생전에 닦는 것이다. 이렇게 닦아나가는 세상을 상징화한 부처님세계가 바로 극락의 대웅전인 것이다. 아미타불을 염불하면 아미타불의 대원의 바다에 들기를 소원하는 것이 곧 사바의 고통을 떠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근대에는 정초에 세배를 하고 ‘축상작법(祝上作法)’을 하였지만 예전에는 재회를 할 때마다 삼전축원을 하거나 ‘축상작법’을 봉행하였다. 사찰의 역할이 임금과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인 이상 당연한

의무였다. 비보사찰인 청련사는 더욱 그러했다고 보인다. 대중이 법당에 가지런히 입장하여 향을 드는 계송을 하고 할향과 연향계를 한다. 그리고 삼보님께 예배하고 난 다음에 보례계송을 하고 주상전하의 수명장수를 축원하겠다고 하면서 삼전(주상·왕비·세자)의 축수(祝壽, 수명장수 축원)를 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량수불[재칭] 주상전하수만세 무량수불 [삼창삼답]  
 약사여래[재칭] 왕비전하수제년 약사여래 [삼창삼답]  
 석가여래[재칭] 세자저하수천추 석가여래 [삼창삼답]  
 소제장보살[재칭] 干戈息靜國民安 소제장보살 [삼창삼답]  
 치성광여래[재칭] 天下泰平法輪轉 치성광여래 [삼창삼답]

선창과 후창으로 대중이 임금과 왕비와 세자의 수명을 무량수불, 약사여래, 석가여래에게 청원하고 소제장보살과 치성광여래에게는 국토민안과 법륜상전을 축원하고 광명회상불보살을 삼창삼답한 다음 기경(起經)작법을 하고 대승경전과 다라니를 염송한 다음 다시 삼전축원을 하고 법계축원을 하여 마치는 형식이다. 왕권국가가 아닌 민주화 시대에는 이 의식은 사자지게 되었다. 지금은 사실상 삼전축원의 다음 구절만 축원 때에 하고 있다.

불교가 국가의 통제 아래 있을 때라고 하면 당연한 모습이다. 현재 한국불교에서 행해지는 시련의식은 선왕선후의 위패를 일주문 밖에까지 나아가 맞아들이는 의식인데, 시대가 변해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정조 대왕 행렬 등을 전통문화로 재현하고 있지만 불교의 전통문화는 사라져간다고 하여 단순히 재현하는 데 머물지 않고 늘 그 본질을 추구하며 나의 완성과 우리의 안녕을 기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교를 떠나 수용해야 할 정신문화라고 할 수 있다.

#### 4. 대방의 법회

청련사 대방에는 관음탱, 감로탱, 현왕탱, 후불탱, 신중탱이 모셔져 있었다. 대방에 모셔진 탱화가 많은 만큼 여러 정근 기도와 예참 법회가 설행되었을 것이다.

① 신중기도: 제석탱과 신중탱이 모셔져 있다. 한국 사찰의 성격이 비보사찰이며 특히 한양 도성의 4대 비보사찰인 청련사의 제석과 신중탱은 더욱 그 의미가 각별하다. 제석탱의 제석은 제석천(帝釋天, 사크라)은 불교의 수호신인 천부 중 한 분인데, 천주제석(天主帝釋), 천제(天帝), 천황(天皇)이라고도 한다. 바라문교, 힌두교, 조로아스터교의 무신이자 히타이트 조문에서도 등장하는 뇌신 인드라가 불교적으로 변화된 것이다. 아내는 이수라의 딸 사지(범어명 사치)인데, 범천과 한 쌍의 형상으로 표현될 때는 양자를 묶어 '범석(梵釋)'이라고도 하며, 한반도의 단군 신화에서는 석제환인(釋提桓因)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sup>157)</sup>

불교 호법신의 성격 상 일찍이 국왕에 의해 신앙되었는데, 백제 무왕은 제석천을 주존으로 모시는 내불당을 창건하기도 하였으며, 태조 왕건은 924년 외제석원, 신중원, 구요당을 창건해 기도사찰로 삼았다. 신중기도로 일괄하여 표현되고 있으며, 나라의 호국과 안녕을 기원하는 신중기도는 「신중경」 독송이나 재앙을 없애는 주문이나 다라니를 염하는 방식이었다고 보이는데, 호위하는 군사들에 의하여 진행되었다.<sup>158)</sup> 국왕과 국토호위를 담당하는 군인들이 설행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다. 오늘날 신중기도는 새해 정초나 매월 초하루 내지 초삼일에 봉행되는데, 한 해 동안 한 달 동안의 가호를 기원하는 의미이다.<sup>159)</sup> 현재 의례의 초두에 성현을 청하여 옹호를 부탁하는 의식은

157) <https://ko.wikipedia.org/wiki/%EC%A0%9C%EC%84%9D%EC%B2%9C>

158)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2월 27일 임인 2번째 기사.

창불(唱佛)로 행해진다. 옹호계송 염송으로 하거나 소창불이나 화엄창불, 대창불의 다양한 형태가 신증기도의 하나로 행해지고 있다.

② 대령 및 시식: 대방에 모셔져 있던 현왕탱은 보현왕여래로서 명간세계의 회주이다. 사후 3일째 되는 날 현왕현공을 현왕탱 앞에서 봉행하였을 것이다. 주로 대령이나 반흔제, 제사 등을 올릴 때도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 이후 주로 등장하고 있는 대방은 대웅전 앞에 지어져 염불당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후불탱이 모셔져 있었던 것을 보면 다양한 법회가 설행되는 등 사찰의 대방은 다용도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 5. 칠성각

1940년대 청련사에는 치성광여래와 칠원성군을 모시는 칠성각이나 나반존자를 모시는 독성각, 산신을 모시는 산신각이 구비되지 않고 칠성각에 함께 모시고 있었다고 보인다. 현재는 대웅보전 우측에 삼성각을 건립하여 삼성(三聖)을 모시고 있다. 현재는 삼성각이 칠성 독성 산신 세 분을 모시는 전각인 것처럼 알고 있지만 1940년대 청련사 칠성각에 모셔진 삼성(三聖)에서 보듯이 세 성현은 각각 독립적인 영역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 칠성각에 모셔진 성현들은 별도의 예경을 하고 있으며, 각 성현께 소원을 아뢰고자 할 때는 보통 삼성각에 들어가면 세 분께 삼배 예경을 올린 다음 특별히 기도드릴 성현 앞에서 절을 하거나 정근을 하며 기도를 올린다. 칠성기도는 자손의 수명장수를 발원할 때 주로 봉행하고, 산신기도나 독성기도는 산역을 담당하는 신증이라는 인식에서인지 재수대통을 발원하는 기도가 주로 봉행된다. 산신기도는 고사와 같은 민간의 길흉을 점지해준다는 인식이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불교의 산신은 영산 당시 석가모니 부처님의 특별한 부촉을 받고 강과 산에 진을 치고 있다. 그리고 그곳의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이 임무이다. 높고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을 벗 삼아 이곳저곳 자유롭게 한가로이 다니면서 중생을 건진다. 산신은 삼성 가운데 가장 토속적인 신중으로 한국 민중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들의 수호신이기도 하다. 칠성과 산신이 하늘과 강산이라는 특별한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 독성은 나한 빈두로 존자로 알려져 있는데, 천태산에 계시며 천상과 인간의 공양을 받아 그들로 하여금 복을 짓게 하는 역할을 한다.

## 6. 의궤(儀軌)로 펼쳐지는 무형문화

전통의 한국 사찰에는 적지 않은 전적(典籍)이 전해지고 있다. 1940년대 조사된 청련사의 전적도 주지 성월 화상 소장을 합하면 경전이 7종, 의문이나 의궤 5종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청련사에 소장된 『요탈문(要奪文)』과 『법과경(濃葩經)』(제반문의 일종)을 중심으로 무형의 의례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 예참은 영산작법을 행하고, 7일 수록재를 행할 때나 법석 때의 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수록재 의문인 『결수문』이 소장되어 있으며, 변식의 작관(作觀)을 설명해주는 허응보우(許應普雨, 1515~1565)의 『수월도량공화불사빈주문답』(표지 제목 ‘공화집’으로 추정됨)이 남아 있었는데, “수월도량공화불사”인 영산재나 수록재의 빈번한 설행을 짐작할 수 있다. 『제반문』 계통 의문은 ‘시왕대례의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통적인 한국형 수록재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sup>160)</sup> 이는 칠칠재나 생전예수재를 광대하게 봉행할 때 활용되었을 것이다. 또 문정왕후가 시주하여 간행한 『천지명양수록잡문』이 소장돼 있었는데 수록재가 사시(四時)에

160) 이성운(2016), 289.

설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하겠다.

「낙양종남산청련사증창상량문목실」에 의하면 청련사를 ‘허공을 들보로 삼고, 사성(四聖)의 뼈로 기둥을 삼고, 육범(六凡)의 뼈로 용마루를 삼고, 거북 털로 옹벽을 삼고 토끼 뿔로 기와를 삼아 창건하였다’고 한다.<sup>161)</sup> 이는 다름 아닌 ‘수월도량공화불사’를 의미한다. 사성육범을 모두 청해 공양하고 시식하는 의례가 수록재이다. 이때의 수록재는 예수재가 포함된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산 상진(常眞) 소장의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1576년 광흥사 개판)는 전통 예수재 설행도량의 면모를 더해주고 있다.

이렇듯이 청련사 도량에서는 창건·증창 이래 국왕을 비롯한 사부 대중의 바람을 성취하기 위해 다양한 의례가 설행되었다. 불교의 소장(塑像)이나 화상(畫像)은 모두 불교도의 예배와 귀의의 대상인 성물이다. 그 성물 앞에 불교도들은 예경하고 소원을 빈다. 소원을 비는 이들의 마음과 마음에 감응하여 영험을 얻는다. 그 영험은 시간과 공간을 떠나 회자된다. 청련사 소장 『영험전』도 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지극한 정성은 영험으로 확인되고 그 증거는 영험이라는 민중의 역사를 이룬다.

## V. 결어: 역사를 잇는 전통의례

청련사에 소재한 전각과 그곳에 소장된 소상과 화상을 중심으로 전통의례문화의 양상을 훑어보았다. 여전히 그 모습이 오리무중일 수 있다. 유형의 전각과 소장·화상은 신앙인들의 지극한 존경심의 발로로 조성되고 건립된다. 역사적 사실과는 무관하게 붓다의 상은 붓다께서 도리천에 계신 어머니께 설법을 하해 도리천에 가서 이 땅에 계

161) 白牛大宗師法語集編纂委員會(2016), 300.



시지 않을 때 부처님을 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우전왕에 의해 조성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 기사가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고 해서 무의미한 것은 아니듯이 청련사 대웅전에 모셔진 팔상전의 신화적인 이야기는 사실성 못지않은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석가모니불의 전기에 관한 자료들은 오랜 세월에 걸친 신화화 과정의 산물로 현대라고 하는 평면 위에서 조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한 신화를 하나하나 그것이 행해진 시대와 장소 및 집단에 따라 정리되고, 그 전승의 의미를 캐내는 작업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석가모니불의 전기나 청련사의 전승에 관련된 설화는 사실 여부와 다른 의미가 있다. 그 이야기 각각에는 그것을 전승한 집단, 각각의 시대, 각각의 장소에 있어서 불교를 믿고 수행하는 이들이 붓다와 당해 사찰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sup>162)</sup> 그러므로 역사적 사실의 중요성 못지않게 그것을 전승 수용한 이들의 자세와 그 대응이야말로 진정한 전통문화의 계승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는 한 사회 구성원의 의해 공유되어야 하고, 학습되어야 하며, 축적되며 세대를 이어가며 전승되어야 한다. 또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각 시대와 지역에 맞도록 변화하는 속성을 가져야 한다.<sup>163)</sup> 이렇게 될 때에 전통문화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가는 문화전통으로 자리매김한다. 그렇다면 천년을 이어오며 전승된 청련사의 전통 불교의례문화는 어떻게 계승되고 있으며,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청련사는 서울의 종남산 산록에서 도시계획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해 양주 개명산으로 이건(移建)되었다. 『청련사지』에 보이고 있듯이 종남산 인근으로 옮겨진 것과 달리 비록 옛 땅은 같은 양주라고 하지만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전한 것이다. 서울에 있을 때는 한국불교 태고

162) 中村元, 金知見 譯(2011), 423.

163) 임영정(2002), 19-18.

종의 '서울3사'로 잘 알려져 있었지만 나머지 두 사찰과 달리 잘 알려져 있지 못했다. 경내가 협소해 많은 대중이 머물지 않은 데서만 그 원인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청련사 안팎을 만나보면 한강가의 우뚝 선 도량이 주는 고고함처럼 청련사 나름의 고고한 가풍을 만날 수 있다. 스스로 자신들의 문화를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을 뿐이었다.

청련사 총무이자 어산인 상진(常眞)은 청련사에 전승되는 소리가 동교소리라고 증언한다. 그동안 경산 소리의 전통은 개운사 흥천사와 함께 청련사(안정사)가 이었다는 것이다. 주지 해경과 원로승려 유지홍도 증언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다카하시도로우(高橋亨)의 『이조불교』(1929)에 기록된 백련사의 이만월(李滿月)이나 영도사(또는 개운사)의 이만월(李滿月)이 양(兩)만월로 소개되고 있으며,<sup>164)</sup> 이후 그들의 소리를 배운 제자들이<sup>165)</sup> 전승하였다. 그런데 청련사 주지 해명이나 원로 유지홍이 언급하는 능해, 을룡, 벽과 어산에 대한 기록은 그곳에 보이지 않는다. 『이조불교』(1929)의 기록이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청련사 어산 스님들의 기록이 존재하지 않음은 아쉬운 일이다. 청련사 주지나 원로승려들은 청련사의 전통을 대단히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데, 기록되지 못한 것은 단지 범패만이 아니다. 종남산 청련사에는 부도도 있지 않고 범패를 잘 하던 어산들이 외부 재장으로 다니지 않아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청련사 어산계에 변화에 일어나게 된 것은 2010년 어산 상진의 청련사 합류라고 할 수 있다. 상진은 일찍이 영남에서 범패를 익힌 후 청련사에 합류하였다. 청련사의 전통문화전승에 일대 전환점이 되었다. 청련사 역사가 면면히 이어져왔듯이 사라져 버릴 수 있었던 청련사의 소리 전통이 어산 상

164) 高橋亨(1971), 804-805.

165) 韓萬榮(1984), 15-3.

진에 의해 이어지고 있다. 현대 청련사 어산 벽파(2013년 작고)는 김포의 장벽응 어산에게 소리를 전수받았는데, 청련사 어산 상진 또한 벽응과의 인연이어서인지<sup>166)</sup> 소리가 비슷하다고 유지홍은 증언한다. 상진 어산은 동만월의 제자 전우운과 서만월의 제자 이범호에게 소리를 이은 안덕암을<sup>167)</sup> 계사로 하여 득도한 후, 인왕산 어산이었던 벽파 어산이 청련사에 합류하였듯이, 청련사에 주석하며 그 전통을 역동적으로 되살려 나가고 있다.

범패를 하는 스님들은 어산·범음·범패로 불리고 재장에서 그 역할을 분장한다. 설주를 이운할 때는 어산을 칭해 하고, 패불을 이운할 때는 범음을 칭해 하며, 경함을 이운할 때는 범패를 칭해 하는 것이다.<sup>168)</sup> 한국의 전통의례에는 각종 변이나 법구 등에서 유형문화를 만날 수 있고, 범패에서 한국 전통음악의 특징을 만날 수 있다. 범패를 연마하여 재장을 선도하는 어산의 역할은 재회의 장엄함을 극도로 이끌어준다. 범패 없는 불교의례는 평범한 종교의례에 멈추고 만다. 범패나 범음이 없으면 엄불소리로만 재를 집행하게 되어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 있다. 법당 앞이나 산수 정갈한 야외에서 설행되는 영산재나 수록재·예수재 등이 범패 없이 설행되면 설령 아무리 경건한 종교의례라고 할지라도 전통문화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른 어느 사찰의 범패 못지않은 어산 소리를 전승하였다고 자부하는 청련사가 재삼 주목을 받고 있다. 한양은 원래 양주 땅이라고 권근은 신도가에서 노래했다. 신도(서울)는 양주였다. 서울에서 다시 양주로 이 건된 청련사는 단지 더 넓은 도량을 확보하여 옮겨놓았다고 보면 시대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이다. 청련사의 양주 이 건은 당우의 이 건보다 중요한 천년의 소리와 전통문화를 이 건하는 역사적인 사

166) 어산 상진은 태고종 동방대학 교무과장으로 봉직 시 학교에 강의 나온 장벽응 어장과 종종 모실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한다.

167) 韓萬榮(1984), 18.

168) 智還 撰(1993), 10.

건이다. 전통 범패를 교육하는 안정불교대학을 운영하며, 면면히 이어져온 문화유산을 전수하며 새롭게 정립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불교 전통의례문화의 전승자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놓고 있다.

도성의 비보사찰이자 진호사찰인 청련사가 이곳 양주 개명산에 자리하게 되었다. 개명산 청련사 남쪽에는 고속도로가 나르듯이 달리고, 주위에는 각종 박물관이 즐비한 문화의 골짜기가 되었으며, 또 한편에는 위락시설과 요양시설이 가득 들어차 현대 한국사회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대적광전 아래에는 이승을 다한 영령들이 잠들고 있다. 산 이와 죽은 이가 함께 즐기는 불교의례의 도량에서 울려 퍼지는 범패소리와 범종소리를 듣고 나고 죽는 것을 떠나게 된다. 현대 사회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념 문제, 계층 간의 갈등과 불신, 노년 문제 등이 산적해지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으로 해결하는 데는 적지 않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왜인가. 이것들은 욕망과 자아의식 등 인간의 근원적인 인식에 터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의 문제들은 현실적인 대책에 마음의 안락을 얻게 하는 정책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 해법은 삶과 죽음에서 해탈하여 열반을 추구하는 불교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의 전통불교의례문화는 천 년 이상 그 일을 해왔다. 산 이도 죽은 이도 함께 마음의 평안을 찾는 전통의례문화의 법과 미래를 가지고 청련사는 양주로 이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보는 이에 따라 관점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그 본질과 실상을 바로 보면 답은 분명해진다. 초기 불교 이래 불교가 가르쳐온 8정도의 첫 가르침은 정견(正見)이다. 바르게 보는 것이다. 눈 있는 자 보라고 하지 않았던가, 청련사를 증창하였다고 알려진 무학 대사의 법어가 사회에 회자되고 있지 않는가. ‘보는 이의 마음에 따라 보이므로’ 바르게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통문화는 하루아침에 성립되지 않는다. 오랜 역사 속에 그것을

전승하는 집단이 공유하고 학습하며 계승하며 시대를 따라 최적화될 때 문화전통이 되며 그 가치가 빛난다. 전통의례가 역사를 잇는 구실을 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宗蹟, 『水陸緣起』, 『施食通覽』, X 57.  
『태종실록』 1권, 3권, 15권, 25권  
『세종실록』 6권, 126권  
『세조실록』 35권, 37권
- 鎌田茂雄 著, 鄭舜日 譯(1992), 『中國佛敎史』, 경서원.  
高橋亨(1971), 『영인본 李朝佛敎』, 보련각.  
高翊晉(1989), 『韓國古代佛敎思想史』, 동국대학교출판부.  
곽희(2018), 『오대산문수신앙에 대한 재검토』, 『불교학연구』 제54호, 불교학연구회.  
권근(1987), 『국역양춘집』, 민족문화추진회.  
金永材(1999), 『화엄밀교적 원형으로서의 오대산 만다라』, 『한국불교학』 제25집, 한국불교학회.  
金煥泰(1997), 『三國遺事에 보이는 華嚴思想』, 『韓國華嚴思想』,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대한불교조계종(2011), 『한국불교사』, 조계종출판사.  
변영섭(2008), 『문인화 읽기(讀畫)와 사의성(寫意性) 이해』, 『미술사, 자료와 해석』, 일지사.  
白牛大宗師法語集編纂委員會(2016), 『白牛大宗師法語集』, 청련사.  
사찰문화연구원(2008a), 『전통사찰총서』 3, 사찰문화연구원.  
사찰문화연구원(2008b), 『전통사찰총서』 4, 사찰문화연구원.  
徐閔吉(1976a), 『道誥과 그의 裨補思想』, 『한국불교학』 1집, 한국불교학회.  
徐閔吉(1976b), 『道誥 裨補思想의 淵源』, 『佛敎學報』 13집, 東國大學校 佛敎文化研究院  
徐閔吉(1993), 『密敎思想』, 『韓國佛敎思想史概觀』, 동국대학교출판부.  
안진호 · 이종익, 이철교 해제(1994), 『서울 및 근교 사찰지(봉은사본말사지)』, 『다보』.  
유근자(2018), 『양주 청련사의 조선 후기 불교조각 연구』, 『양주 청련사의 역사와 문화』, 천년고찰 청련사.  
이성운(2012), 『한국불교의례체계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성운(2015), 『한국불교 생전예수재의 특성』, 『정토학연구』 제23집, 한국정토학회.

- 이성운(2016), 「불교 의례의문의 명칭에 대한 고찰」, 『기호학연구』 제47집, 한국기호학회.
- 이성운(2017), 「한암과 지암의 호법 관」, 『한암의 선사상과 제자들』, 쿠담북스.
- 李智冠(1993), 「華嚴思想」, 『韓國佛教思想史概觀』, 동국대학교출판부.
- 李載昌(1993), 「序說」, 『韓國佛教思想史概觀』, 동국대학교출판부.
- 임영정(2002), 『한국의 전통문화』, 도서출판 아름다운 세상.
- 智還 撰(1993), 『영인본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 3집, 삼성암.
- 中村元 金知兒 譯(2011), 『佛陀의 世界』, 김영사.
- 蔡印煥(1993), 「禪思想」, 『韓國佛教思想史概觀』, 동국대학교출판부.
- 최복희(2010), 「불교문화 삼원론」, 『불교학연구』 제27호 불교학연구회.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편(2000), 『문화와 철학』, 동녘.
- 韓萬榮(1984), 『韓國佛教音樂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 Catherine Bell(1977), *Ritual: Perspective and Dimension*, Oxford Univ. Press.
- N. Smart, 강돈구 역(1986), 『현대종교학』, 청년사.
- W. R. Comstock, 윤원철 역(1986), 『종교학』, 전망사.

<https://ko.wikipedia.org/wiki/%EC%A0%9C%EC%84%9D%EC%B2%9C>

**[Abstract]**

**The traditional rituals performed in Cheongryeonsa of a protecting temple**

Lee, Seong-Woon

Research Professor at Dongbang Culture Univ.

This writing considers the Buddhist traditional rituals of Cheongryeon-sa (temple) which during the reign of King Heungdeok of Sila Dynasty was Anjeongsa on Mt. Nam located in Wangsim-ri, Seoul but was later rebuilt by Seon master Muhak during the early Joseon Dynasty. It was rebuilt again and again and then moved to Mt. Gaemyeong in Yangju, gyeonggi-do (province) in C.E 1010.

The first Chapter begins with the premise that the Buddhist rituals contain and are a rich repository of traditional culture while discussing the meaning of the culture that dominated that time and region.

The history of construction of the Korean temple is studied in the second chapter. it is determined that Cheongryeon-sa was built as a complementing temple based on the idea of Mandala for protecting the country and the thought of reinforcing river and mountain.

The third chapter argues that this temple was designated as a protecting temple and Mandala for protecting the country of Eastern blue lotus and Western white lotus.

The forth chapter examines in detail the Buddhist traditional rituals which were performed within this temple based upon the Dangu (the buildings of a temple) and its records and books.

Lastly, its transmission aspects of the traditional culture after the relocation to Yangju is considered, focusing on Beompae (the Buddhist music). Here it is discussed how the history of the traditional culture was inherited and this means.

Key words : the Buddhist ritual, Anjeongsa, Cheongryeonsa, the traditional culture, a complementing temple, a protecting temple, Eosan (The singer of a Buddhist ritual song), Sangjin (常眞)

투고일 : 2018년 6월 30일 / 심사일 : 2018년 7월 20일 / 게재확정일 : 2018년 7월 31일